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http://kschs.or.kr>

Vol. 5, No. 3, September 2017, pp. 963-972

DOI: <http://doi.org/10.15205/kschs.2017.09.30.963>

일 지역 고등학생의 금연의도 영향 요인

정추영¹, 최은정², 서영숙¹

¹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경상북도 보건정책과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Quit Smoking of High School Students in a Community

Chu-young Jeong¹, Choi Eun-Jung², Young-sook Seo^{1*}

¹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²Department of Health Policy, Gyeongbuk Province office

(Received August 15, 2017; Revised August 23, 2017; Accepted August 25, 2017)

Abstract

Purpose. This study uses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investigate predictors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in smoke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a community.

Method.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138 smokers from high school students in a community. Between May to April 2015,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PASW 21.0 program, and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of this study was 3.98/5. The significant correlates of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were attitudes toward smoking cessation ($\beta=.36$, $p=.003$),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beta=.44$, $p<.00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beta=.22$, $p=.009$), number of friends smoking ($\beta=.76$, $p<.001$), and previous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beta=.92$, $p<.001$). These variables explained 75.6% of variance in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various factors including previous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number of friends smoking,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cessation were important variables in explaining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these variables are crucial in determining the promotion and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High school students, Intention, Self-efficacy, Smoking cessation, Theory of planned

*Corresponding author : seo1657@naver.co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¹⁾. 특히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게 되므로, 학교생활은 청소년의 정체성과 사회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²⁾.

한편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학력을 중요시 하는 사회풍토에서 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²⁾. 이로 인해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³⁾,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쉽게 음주와 흡연 등의 문제행동을 선택하게 된다⁴⁾. 최근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5년 11.7%(남학생 18.3%, 여학생 4.5%)로 청소년의 흡연이 주요한 보건문제가 되고 있다⁵⁾.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음주와 약물 선택 및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⁶⁾. 이에 보건 당국과 학계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으로 담배규제, 예방교육 및 연구 조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정적 일탈행동은 흡연으로 보고되었다⁸⁾.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금연 행위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자존감,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요인²³⁾과 부모 또는 친구의 흡연, 선생님과의 유대관계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¹⁸⁾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금연동기와 금연과정에서 가정과 학교 및 교우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⁹⁾, 심리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

또한 하나의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행위에 어떻게 작

용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행위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¹¹⁾. 특히 계획된 행위이론은 인간이 특정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행위의 결정인자로 제시하였고, 의도요인은 특정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통제된 지각행위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¹²⁾. 이에 Ajzen과 Madden¹²⁾의 계획된 행위이론은 인간의 건강행위를 예측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¹³⁾, 금연의도의 연구¹⁴⁾¹⁵⁾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의도를 알아보고자 계획된 행위이론의 변수들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흡연율이 높게 보고된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금연의도 및 금연행위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과 계획된 행위이론을 토대로 금연의도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를 분석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부 고등학생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시와 K시에 소재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흡연을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설문지 응답이 가능한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D시, K시의 5곳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수행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자료수집 전에 연구취지와 목적,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적절한 표본 수는 G*Power version 3.1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effect size) .15, 검정력($1-\beta$) .95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8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부를 배포하였으나 불충분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총 13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금연태도

금연태도는 흡연에 대한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¹⁶⁾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3.2.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자기효능감은 금연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Carlo et al.¹⁷⁾이 개발한 도구를 Kim¹⁸⁾이 번안하고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 문항으로 ‘전혀 자신이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신이 있다’의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8$ 이었고, Kim¹⁸⁾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3.3.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 주관적 규범은 자신의 흡연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Jung¹⁰⁾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 주관적 규범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¹⁰⁾의 연구에서는 수직적(부모) 규범은 Cronbach's $\alpha=.94$, 수직적(교사) 규범은 Cronbach's $\alpha=.96$, 수평적 규범은 Cronbach's $\alpha=.96$, 총 주관적 규범 Cronbach's $\alpha=.95$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규범(부모요인, 교사요인)은 Cronbach's $\alpha=.84$, 수평적 규범(형제, 친구요인)은 Cronbach's $\alpha=.89$, 총 주관적 규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2.3.4. 금연의도

금연의도는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나는 담배를 끊을 의도가 있다”, “나는 금연을 시도할 것이다”, “나는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의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금연의도 문항을 간호학과 교수 3인과 금연교육 지도사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한 결과 Cronbach's α .80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2.3.5.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족요인과 친구요인, 학교요인, 일반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요인은 부모 또는 가족의 동거 여부, 지각된 가정의 경제상태, 부모 또는 가족 흡연유무로 3문항, 친구요인은 흡연하는 친구의 수 1문항, 학교요인은 학교생활 적응도, 학업성취도 2문항, 일반적 요인은 성별, 학년, 하루 평균흡연량,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 금연교육 유무, 금연실패 경험의 6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2문항을 질문하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 정도의 차이 검정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정을 사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흡연의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 차이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생이 34.1%, 2학년생이 33.3%, 3학년생이 32.6%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이 31.9%, 남학생이 68.1%이었다. 부모와의 동거 유무는 72.5%가 동거하고 있었으며, 조부모 등 기타 확대 가족들과 동거하는 경우가 27.5% 이었다. 지각된 가정의 경제상태는 중산층이 76.8%이며, 부모 또는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1.7%이었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52.1%가 5~10개피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호기심’이 52.9%, ‘선배와 친구 권유’가 34.1%로 처음 흡연 시작 시기는 ‘중학교’가 60.9%, 친한 친구 흡연하는 친구의 수는 5명이 42.0%이었다.

또한 금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가 72.5%, 금연 시도 경험은 ‘있다’가 60.9%이고, 금연실패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 32.6%, ‘주위환경 유혹’이 22.5%, ‘동기 부족’이 18.8%이었으며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금연교실 운영’ 41.3%, ‘전문가의 시청각 교육’ 29.7%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의 정도

대상자의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 금연의도의 정도를 살펴보면, 금연태도는 3.95점, 금연 자기효능감은 3.90점, 금연 주관적 규범은 3.57점, 금연의도는 3.9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주요변인 간의 관련성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관련된 주요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들은 금연태도

Table 1.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8)

Variables	Categories	n(%) or M (SD)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M (SD)	F/t (p)
Age (year)		17.94±0.89		
Grade	1st	47(34.1)	1.82±0.60	4.72(.011) [†]
	2nd	46(33.3)	2.91±1.64	
	3rd	45(32.6)	3.29±1.48	
Gender	Female	44(31.9)	3.17±1.52	0.29(.589)
	Male	94(68.1)	2.98±1.55	
First use	Element school	14(10.1)	2.93±1.52	0.25(.773)
	Middle school	84(60.9)	3.14±1.59	
	High school	40(29.0)	3.12±1.56	
Smoking amounts/day	< 5cigarettes	37(27.0)	4.10±1.02b	4.12(.008) ^{***}
	5~10cigarettes	72(52.1)	3.21±0.89b	
	11~20cigarettes	22(15.9)	1.75±0.52a	
	> 21cigarettes	7(5.0)	1.84±0.84a	
Living with parents	Yes	100(72.5)	3.10±1.22	0.28(.578)
	No (other family)	38(27.5)	2.88±1.35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9(6.5)	2.90±1.47	0.47(.651)
	Middle	106(76.8)	2.91±1.52	
	Low	23(16.7)	3.16±1.43	
Smoking parents or families	Yes	99(71.7)	3.04±1.55	0.43(.836)
	No	39(28.3)	2.98±1.53	
Smoking friends	Yes	130(94.2)	1.84±1.50	13.57(.001) ^{**}
	No	8(5.8)	3.17±1.56	
Reasons for smoking	Curiosity	73(52.9)		
	Exhorting of friends and seniors	47(34.1)		
	Solution stress	6(4.3)		
	Good to tobacco taste	6(4.3)		
	Report a magazine or advertising	1(0.7)		
	Weight control	1(0.7)		
	Looks like nice	4(2.9)		
	Reason of smoking cessation failure	Lack of intention	26(18.8)	
	Weakness of will	45(32.6)		
	Withdrawal symptoms	8(5.8)		
	Temptation surroundings	31(22.5)		
	Stress	24(17.4)		
	Weight gain	4(2.9)		
Education of smoking cessation	Yes	100(72.5)	3.64±1.42	15.78(.001) ^{**}
	No	38(27.5)	2.28±1.65	
Effectiveness Methods for smoking cessation	instructors teaching	7(5.1)		
	Professional instructors teaching	27(19.6)		
	Audio-visual education	41(29.7)		
	Smoking classroom	57(41.3)		
	Others	6(4.3)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3.93±1.40	4.25(.009) ^{**}
	Moderate		2.96±1.62	
	Unsatisfied		1.26±1.63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Yes	84(60.9)	3.34±1.52	15.32(.001) ^{**}
	No	54(39.1)	2.18±1.45	

[†] Scheffé-test; *p<0.05, **p<0.01

Table 2. Mean of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and Subjective Norms of Smoking Cessation (N=138)

Variables	Mean (SD)	Potential Rang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3.98(0.52)	1-5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3.95(0.63)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3.90(0.52)	
Subjective norms of smoking cessation	3.57(0.52)	

($r=.66, p<0.01$), 금연 자기효능감($r=.81, p<.001$), 금연 주관적 규범($r=.59, p<0.01$)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금연태도는 자기효능감($r=.69, p<0.01$), 금연 주관적 규범($r=.62, p<0.01$) 간의 양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은 금연 주관적 규범($r=.57, p<0.01$)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3.4. 대상자의 금연의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과 일반적 특성에서 학교생활만족도, 흡연하는 친구의 수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인

중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인은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성선과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tolerance)는 .46~.94으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45~2.07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았다. 등분산 검정은 잔차도표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금연의도에 관련요인은 금연태도($\beta=.36, p=.003$), 금연 자기효능감($\beta=.44, p<.001$), 학교생활만족도($\beta=.22, p=.009$), 흡연하는 친구의 수($\beta=.76, p<.001$), 금연시도 경험($\beta=.92, p<.001$)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은 대상자의 삶의 질을 75.6% 설명하였다($F=51.87, p<.001$)(Table 4).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138)

Variables	Y	X1	X2	X3
	r (p)			
X1	.66(.005)	1		
X2	.81(<.001)	.69(.006)	1	
X3	.59(.004)	.62(.005)	.57(.004)	1

Y=Intention to smoking cessation; X1=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X2=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X3=Subjective norms of smoking cessation.

Table 4. Predictors of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N=138)

Variables	β	t	p
Attitude toward smoking cessation	.36	3.42	.003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44	5.13	<.001
Satisfaction of school life	.22	2.15	.009
Number of friend smoking	.76	7.26	<.001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92	8.76	<.001

Adjusted R2=.756 F=51.87,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금연중재 프로그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고등학생의 흡연의도의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고 확인된 영향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금연의도와 관련된 변인은 금연태도,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주관적 규범과 학교생활만족도, 흡연하는 친구의 수, 금연 시도 경험이었고, 이들 변인은 금연의도를 75.6%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금연의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및 친구 등의 환경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반영하며, 아울러 고등학생의 금연의도는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규범 등의 내적 요인 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금연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략은 자기효능감 향상과 금연태도 및 주관적 규범의 긍정적 인식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으로 수행되어야 대상자들의 금연의도를 증진할 수 있는 위한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금연의도는 금연 시도 경험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에서 금연실패 경험이 낮은 금연의도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¹⁹⁾²⁰⁾²¹⁾.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의 차이점으로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주기적이며 지속적인 금연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경험으로 인해 금연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동기유발이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흡연하는 친구의 수가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이었는데, 이는 흡연하는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금연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²²⁾²³⁾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학교 생활환

경이나 교우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²⁴⁾,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 경험률이 78.6%로 유의하게 높았다²⁵⁾. 또한 친구의 흡연이 금연 실패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⁶⁾. 한편 흡연을 함께 하는 친구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높게 보고됨²⁷⁾에 따라 흡연행동 및 금연의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고등학생의 금연의도는 친구집단이 강력한 환경적 요인이며, 금연교육 및 금연의도 향상 프로그램 등은 친구집단을 필히 적극적으로 참여 시킬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세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금연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²⁸⁾와 Schnoll 등²⁹⁾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²⁸⁾²⁹⁾에서의 금연 자기효능감 점수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고등학생을 위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연 상담을 통한 재흡연 방지 전략 마련과 자신의 금연성공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과 긍정적 강화 기법은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의 방안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³⁰⁾.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네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금연태도이었는데, 금연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연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연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연 의도와 행동이 유도된다고 한 보고한 연구³¹⁾와 Rise 등¹⁵⁾의 연구에서 금연태도가 금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청소년기의 금연태도는 가정, 학교 등의 사회적 환경과 흡연관련 지식 등에 의해 형성된다³²⁾. 단기간의 교육보다는 주기적이며 반복적인 교육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³³⁾³⁴⁾. 또한 학교에 흡연학생을 위한 실천 가능한 금연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 외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과 사

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대한 관련요인은 금연시도 경험, 흡연하는 친구의 수,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 등으로 설명되었다. 고등학생 청소년의 금연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연시도 및 금연교육 여부 등의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하며 금연 자기효능감과 금연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등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금연의도와 관련된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요인을 다루지 못한 점과 일부 지역의 5개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와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및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금연시도 경험과 흡연하는 친구의 수,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태도, 학교생활만족도 등으로 금연의도를 75.6%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금연시도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하는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금연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생 청소년의 금연의도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환경적 요인 및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태도 등의 요인이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금연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미래의 금연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현재 금연의도와 향후 금연행위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고등학교 흡연 학생들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의 금연의도 및 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다른 영향변인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Lee SH. A study on the validity of protective factors in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8;15(1):223-246.
2. Kim JE, Cho BH. The impa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23(1):57-87.
3. Nam SH, Chun JS. Way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for adolescents : implications from focus group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2;29(3):35-51.
4. Ku IY, Mun WS, Kang JH, et al.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morphology of workers and risk factors of chronic diseas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3;1(2):11-20.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report of the 201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6. Song YY. Change of self-concept of smoking experi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2010;5(1):33-39.
7. Yeon JW, Kim HS, Lee KS, et al. Factors affecting preparation stage to quit smoking in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2;42(3):377-384.
 8. Bae JH, Do ES, Seo YS.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quit smoking in stroke patient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Nursing, 2014; 16(1):49-58.
 9. Kim YK, Park IH, Park JS. Meta-analysis of effects on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program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8;38(2):204-216.
 10. Jung JS. A study on the impact of adolescent smoking characteristics on the attitude toward anti-smoking advertisements-application of extended planned behavior model, Advertising Research, 2013;96:278-317.
 11. Kim JK, Kim GH. Determinants of smoke and smoking frequency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Youth Culture Forum, 2013; 33:88-119.
 12. Ajzen I, Madden TJ.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86;22(5):453-474.
 13. Yoo HR, Lee SH, Yoo TK. Applicability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smoking-cessation intention: an empirical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9; 26(2):49-61.
 14. Haug S, Schaub MP, Schmid H. Predictors of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and smoking reduction,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2014;95(3):378-383.
 15. Rise J, Kovac V, Kraft P, et al. Predicting the intention to quit smoking and quitting behaviour: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13(2): 291-310.
 16. Kim SY. The effects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smo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2003.
 17. Carlo C, DiClemente CC, Prochaska JO, et al. Self-efficacy and the stages of self-change of smok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85;9(2):181-200.
 18. Kim BJ.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tages of change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in military offic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1.
 19. Kim KM, Lee JY. Predictors of intention to quit smoking in the Korean navy smokers, Korean Journal Health Promotion, 2013;13(4): 133-140.
 20. Yeon JW, Kim HS, Lee KS, et al. Factors affecting preparation stage to quit smoking in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12;42(3):377-84.
 21. Lee SN, Jo MJ, Choi YJ, et al.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toothbrushing pattern of the smoker and non-smoker of adults in some region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3;1(2):1-10.
 22. Bondurant S, Wedge R. Combating tobacco use in military and veteran populations. Washington, DC: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9.
 23. DiClemente CC, Prochaska JO, Fairhurst SK, et al. The process of smoking cessation: an analysis of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and preparation stage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 Clinical Psychology, 1991;59(2):295-304.
 24. Seo YS, Kim YI. Factors affecting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intention to quit smoking

- ing: on the basis of the ASE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13;24(4):471-479.
25. Kim YS. The effects of a self-esteem and smoking cessation self-efficacy improvement program on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11;22(2):121-130.
 26. Lee KS, Kang PS, Hwang TY, et al. Factors related to early smoking of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2008;33(1):90-100.
 27. Shin SR, Jeong GC. Predictive variables on intention to stay as a nonsmoker based on educational environment related factors,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007;21(6):5-24.
 28. Lee HJ. Self-efficacy and smok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stage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Seoul, 2007.
 29. Schnoll RA, Subramanian S, Martinez E, et al. Correlates of continued tobacco use and intention to quit smoking among Russian cancer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Medicine*, 2010;18(4):325-332.
 30. Kim CM, Son HM. A study on taxi drivers' smoking behavior, self-efficacy and expectation level of success in smoking cess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05;16(4):517-26.
 31. Park IH, Ryu HS. Correlation among adolescent smoking, stres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00;13(2):271-282.
 32. Choi WH, Je MS, Lee SS. Factors related to smok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0;24(2):226-236.
 33. Oh YM, Son CN.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 smoking cessation program and nicotine patch on smoki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 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 Studies*, 2011;35(2):253-276.
 34. Kim GP. A study on self-efficacy of course decision and major field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3;1(2):40-49.